

건강&생활



신윤경
봄 정신건강의학과외원장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은 서구 선진국에 주눅 들기 십상이던 우리에게 환희와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생충'에 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 영화가 자본주의사회 속 빈부격차에 따른 계급의 양태를 풍자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영화를 보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또 다른 계급이 떠올랐다. 정상과 비정상의 계급.

대개 '비정상'은 무엇이 '정상'으로 정의되느냐에 따른다. 학술어가 아닌 통용어로서의 '정상'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함'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함'은 넓은 범주의 정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비정상'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열등함 혹은 다수 사람들이 동정이나 무시, 거부감을 느끼게 다름'으로 통한다. 현대적 인권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구분에 울적 반감을 일으키겠지만 현실 사회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지하세계인은 '정신적으로 비정상'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지하세계와 기생충

정신질환은 그 사회를 비추는 이상한 나라의 거울이다. 비틀어 보여주는 거울이 괴이하고 우스꽝스러우며 공포스럽지만 이를 덮어서는 안된다. 억압된 무의식이 그렇듯 모른 척 외면하면 터미네이터처럼 더욱 강력하고 위협적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러나 당신이 정신질환, 범죄, 학교폭력, 따돌림이 남의 일이라 여긴다면, 조만간 지상의 당신 집을 지하세계인들이 축대밭으로 만들지 모른다. 답답한 감염과 혐오라는 공포가 교역 중단, 여행 자제, 혐오 공격으로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중국 사회가 일사분란하고 조직적인 대응으로 향후 인공지능 시대에 유리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였으나 이번 사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도리어 중국은 국민들의 공안정치에 대한 반감과 언론 자유의 외침이 커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최근 미국에서도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주의, 장벽 강화주의, 극단적 자국 이기주의 정책 하에서 비영어권 영화가 역사상 최초로 오스카 4관왕을 획득한 것이다. 인류의 집단 지성은 힘의 쏠림에 대해 균형을 잡도록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현대는 통제와 자유가 둘 다 증가하고, '내가 더'와 '함께'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잡는 흥미로운 시대다. 부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기쁨이 국뽕에 머물지 않기를, 더 늦기 전에 공동체에 대한 윤리와 책임 없이 내 자유와 권한도 없다는 묵시록적 메시지에 깨어나기를.

풍경은 음울하고 위태롭다.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아득한 공허의 낭떠러지가 악어처럼 입을 벌리고 있고, 날아든 담뱃재 하나에도 폭발할 분노의 시한폭탄이 짝짜거리며 간다.

정신질환은 그 사회를 비추는 이상한 나라의 거울이다. 비틀어 보여주는 거울이 괴이하고 우스꽝스러우며 공포스럽지만 이를 덮어서는 안된다. 억압된 무의식이 그렇듯 모른 척 외면하면 터미네이터처럼 더욱 강력하고 위협적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러나 당신이 정신질환, 범죄, 학교폭력, 따돌림이 남의 일이라 여긴다면, 조만간 지상의 당신 집을 지하세계인들이 축대밭으로 만들지 모른다. 답답한 감염과 혐오라는 공포가 교역 중단, 여행 자제, 혐오 공격으로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중국 사회가 일사분란하고 조직적인 대응으로 향후 인공지능 시대에 유리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였으나 이번 사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도리어 중국은 국민들의 공안정치에 대한 반감과 언론 자유의 외침이 커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최근 미국에서도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주의, 장벽 강화주의, 극단적 자국 이기주의 정책 하에서 비영어권 영화가 역사상 최초로 오스카 4관왕을 획득한 것이다. 인류의 집단 지성은 힘의 쏠림에 대해 균형을 잡도록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현대는 통제와 자유가 둘 다 증가하고, '내가 더'와 '함께'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잡는 흥미로운 시대다. 부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기쁨이 국뽕에 머물지 않기를, 더 늦기 전에 공동체에 대한 윤리와 책임 없이 내 자유와 권한도 없다는 묵시록적 메시지에 깨어나기를.

편집국 25시



송은범
정치부 차장
seb1119@ihalla.com

#“이번 계기로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설 당시 재판부에 호소했던 말이다. 이 호소가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도지사 ‘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원 지사의 호소는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허언’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희노키오

혐의로 고발하면서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원 지사가 지난 2일 도내 취업지원기관을 방문해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한 것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영양식을 판매한 행위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 정치상황에서는 입당할 생각이 없다. 슬그머니 입당하는 일은 없다.”

지난해 9월 4일 원 지사가 기자회견에 설 당시 재판부에 호소했던 말이다. 그러나 이 발언도 올해 초 보수통합 정당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슬그머니 선언하면서 깨져버렸다. 다만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의논을 해야할 분들에게만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다”는 핑계는 있었다.

앞서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2공화국 영리병원 등 현안을 처리하는 원희룡 지사에 대해 ‘희노키오’라고 비유한 바 있다. 새삼 이 비유가 적절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다.

뉴스-in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긴급 지원

특별보증지원·이자보중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제주도는 12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을 골자로 한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기금 결산안을 심의 의결.

도 관계자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특별보증지원(20억원)과 이차보전(30억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소개. 고대로그자

8개 교류도시에 한라봉 판매

○...서귀포시가 한라봉의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 8개 자매·우호도시에 600여 상자를 판매.

이번에 판매되는 한라봉(3kg)은 지난 10일까지 8개 교류도시를 통해 수요조사한 것으로 한라봉을 이

달 20일까지 택배로 보낼 예정. 시 관계자는 “철원군·용산구와 명절 때마다 농산물을 교류해 왔지만 8개 도시에 한꺼번에 서귀포 농산물을 판매하기는 처음”이라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갈골농가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학교 밖 청소년 전담팀 보류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기로 했다가 방향을 선회.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상담 지원팀 운영을 검토했지만 공무원 정원 증원 문제 등에 걸려 일단 보류.

도교육청 관계자는 “3~4월 중에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곳과 비인가 대안학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 김지은기자

사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반드시 지정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제주도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가 지역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법도민위기극복협의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힌데 이어 나온 조치입니다. 제주경제가 그만큼 심각하지 않은 상황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를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정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해당산업의 위기로 대규모 실직, 휴업, 폐업 등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시도지사는 정부에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실직자 재취업과 이직알선을 포함한 창업·고용안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그나마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명 제주경제는 상당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무사중(무비자)제도가 잠정 중단된 지난 4일 이후 관광객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47.2%) 줄었습니다. 관광산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제주 1차산업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제주지역이 경기 침체에 이어 신종 코로나 국면까지 겹쳐 IMF 못지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주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합니다.

올해 첫 미세먼지 공습, 실효적 대책 절실

제주섬이 작년보다 한달 빠른 미세먼지 공습으로 도민들과 한라산은 운종일 뿐 먼지속에 휩싸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준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세계보건기구 지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나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관용·임직원 차량 통행차량 조정 및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속 운영 등을 시행했지만 단속시스템 미구축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그 효과를 거의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사후적 대응인 비상저감조치 못지않게 상시 관리되는 사전 예방 대책이 제기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청정 제주섬의 미세먼지 공습 문제는 최근 도민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규정돼 범도정 차원에서 총력대응에 나설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했습니다. 2017년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작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제주도의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행정 부서에서 기관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여러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제주지역 미세먼지 공습의 ‘시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5월에 그쳤던 도내 미세먼지주의보 건수는 2018년 8회, 2019년 13회로 급증했고, 올해는 한달 일찍 찾아온 겁니다.

제주지역 미세먼지가 중국 등 외래에서 75%, 자체 발생 11% 등이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도가 시행 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들이 실제 효과를 내도록 시스템 구축 및 인력 확보에 빨리 나서는 한편, 도시숲 조성사업이나 범도민 나무심기 확대 등 근원적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부고
한동훈(경찰청 감사관실) 아버지
청주항공 상준(세종해외관광여행사 대표·향년 65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11일 00시 01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13일(목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14일(금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대흘리 선영
부인 정희열
아들 한동훈 며느리 이경진
승훈 김은주
※ 연락처 : 한동훈 010-2514-6084
한승훈 010-8666-6084
정희열 010-3692-6084
이경진 010-8225-0317
김은주 010-3697-692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여산송씨 성임(향년 9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2월 13일
아들 장성혁 며느리 김순자
성대 고홍주
순길 고유선
성욱 임덕순
장원지 사위 문순선
김상섭

자본감소 및 주권재출공고
1.당 회사는 2020년 2월 5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을 금300,000,000원에서 금100,000,000원으로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200,000,000원으로 한다.
2.발행주식의 총수는 300,000주에서 100,000주를 감소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0주로 한다.
3.자본 감소 방법은 1주의 금액 1,000원으로 하며, 감소한 주식 100,000주는 2019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식수 비례로 유상 소각한다.
4.위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당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주권을 가진 주주들은 당 회사에 주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주주권 및 이의 제출기간 : 2020년 2월 13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2020년 2월 13일
주식회사 아쿠아테크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6길 8, 3층(노형동)
대표이사 고태혁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방 이창후(1935. 2. 7생)
*최후주소 : 제주시 남성로11길 16-8(용담일동)
상기자는 2019년 8월 20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2월 05일 제주지방법원 2020년단3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성신로 34, D동 201호 (연동, 한양신관가든)
2020년 2월 13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강 영 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